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 탐구보고서

중학교 학교교육과정 안 비교과활동을 통한 국토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제언

-제물포여자중학교 교사 안미영

요약

시민으로서의 소양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는 것은 아니라 어려서부터 의도적으로 '교육'되고, 환경에 의해 '형성'되며, 오랜 기간 동안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학습해야 내면화될 수 있다(장의선, 2021). 이에, 본 보고서에서 지구촌 시대 다인종-다문화 사회 속에서 현시대에 어울리는 시민성을 갖춘 미래 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의 국토교육이 갖는 의의와 필요성을 독도교육주간 운영 실태 논문과 국토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논문, 그리고 본교에서 진행한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 및 3학년 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교육주간 운영은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비교과활동으로써의 독도 교육은 단계적 체계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체험활동은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2005년 국토교육 시범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 볼 때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국토교육에 대한 교육의 형태가 실행되면 학생들은 국토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국토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하며, '국토교육' 자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크게 인식한다. 셋째, 본교 국토교육 동아리 운영과 3학년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①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창의적체험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교육 형태로 국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②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국토에 대한 지식 습득 경험이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③ 온라인 학습의 활성화와 메타버스라는 이슈 속에서도 현실의 물리적 공간을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중학교 학년 단계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중학생용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교육과정 계획단계에서 비교과활동을 통한 국토교육의 내실 있는 계획이 요구된다. 셋째, 국토교육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 모델의 안내와 학생 주도적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I. 서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서 거대한 대지를 발견할 수 없다면, 아무리 거대한 대지 앞에서 있어도 꽃 한 송이 하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¹⁾ 이 문장처럼 한 지역에서 전 국토, 그 국토를 넘어 전 지구를 볼 줄 아는 지구촌 시대에 어울리는 시민성을 갖춘 미래 시민을 길러내는데 ‘국토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현실적인 장(場)이 되어 준다.

‘국토교육’은 올바른 국토관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리적인 개념들을 익히고 공간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종용, 안종천 2006)²⁾. 더불어 올바른 국토관 확립과 국토에 함양이라는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국토교육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필요성을 갖는다(이종용, 안종천 2006). 2021년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국토교육에 관한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라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 강령을 빚대어 현재 한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 생활 근거지를 토대로 하되 넓게는 국토애를 넘어 인류애에 가닿는 세계적 맥락 속에서 자신·국토·타인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즉, 내가 서 있는 곳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확장하여 전 국토와 타인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지속 가능한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국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협의로는 개인적 성찰과 자아실현을 도모한다면, 광의로는 지구촌 시대의 세계 시민성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리매김에 이바지한다. 펄 벅의 <대지>, 박경리의 <토지>와 같은 작품의 제목에서 보듯이 ‘국토’는 오랜 시간 우리 삶의 터전이자, 개인적 자아실현의 무대가 되어 왔다.

「지리쌤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도시여행 1」(전국지리교사모임, 2020)의 인천 사례에서 ‘배다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지역주민을 소외시킨 채 진행한 도시재생사업을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협력으로 막아내고, 대신 마을을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듯 ‘배다리’가 주민 자치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도시비전을 이끈 사례라면, 인천공항이나 송도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하향식 개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배다리마을은 송도국제도시와 비교하면 ‘뭔가 완성된 이미지’를 주지 않지만, 지역주민의 주 거주지 변화에 대한 인식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성의 발현이 돋보이는 사례이고, 이러한 것은 매우 중요한 민주시민의 자질이 된다. 또한, 배다리마을 사례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참가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한 능동적 시민성 함양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1) 김종원,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p30))

2) 이종용, 안종천2006. 국토교육 시범학교 운영 성과 및 과제. 국토지리학회지40, no.3:393-406

현재 도시재구조화의 결과는 미래의 사회·공간적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에,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학교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이선영, 2021).³⁾ 시민으로서의 소양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는 것은 아니라 어려서부터 의도적으로 ‘교육’되고, 환경에 의해 ‘형성’되며, 오랜 기간 동안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학습해야 내면화될 수 있다(장의선, 2021).⁴⁾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학생을 자신의 권리·의무,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고, 미래의 시민이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존중하며, 산업사회의 경쟁 패러다임이 미래교육의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된다(교육부, 2018; 신두철, 2019).

시민성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동시에 가치덕목’이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길 원하며,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조철기, 2015).⁵⁾ 최근 세계화의 진전으로 밖으로는 포용적이고 이타적이며 보편적인 글로벌 시민성을, 안으로는 다문화사회라는 이질적이며 분절화된 포스트모던적 특징을 수용하는 다문화 시민성이 요구되고 있다(조철기, 2017).⁶⁾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시민성 발현의 한 축으로 국토교육이 갖는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구촌 시대 다인종-다문화 사회 속에서 현시대에 어울리는 시민성을 갖춘 미래 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의 국토교육이 갖는 의의와 필요성을 관련된 논문과 본교에서 진행한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학교교육과정 비교과활동을 통한 국토교육 -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2.1 독도교육주간 운영이 주는 시사점

필자는 중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담당한지 17년 8개월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학교 업무에서 ‘향토교육’, ‘독도교육’을 상당 기간 담당하였다. 또 ‘계기교육’ 역시 15년간 담당했다. 향토교육·독

3) 이선영(2021). 능동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과 교수학습을 위한 제언. 기전문화연구, 42(1): 129-146

4) 장의선(2021). 글로벌 시대의 민주시민성을 위한 지리교육과정의 기여 실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3), 39-52.

5) 조철기(2015).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과 지리교육의 방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3), 618-630.

6) 조철기(2017). 능동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구 지리환경교육), 25(2), 89-102.

도교육·계기교육 등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자율활동 시간이나 담당 부서에서 기획하는 교육활동으로 진행된다. 담당교사의 역량과 가치관에 따라 학교별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는 유인물 배부로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기획한다면 동영상 시청과 관련된 교내 행사 또는 교내 대회를 진행할 수도 있겠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실시되는 ‘향토교육, 독도교육, 계기교육’을 포함하여 ‘국토교육’의 진행 현황을 본 보고서에서 조사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나, 독도교육주간 운영 실태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논문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비교과활동을 통한 국토교육의 중점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김미선, 이범관(2021)⁷⁾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독도교육주간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⁸⁾하여 도출한 문제점을 토대로 독도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도교육주간 운영 문제점	독도교육 발전 방향
① 독도교육을 위한 전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독도 전문교사가 부족함 ② 이는 학년별·학교 급별 연계교육을 어렵게함으로써 체계적인 독도교육이 실행되지 못함 ③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독도교육이 행사 중심의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됨	1. 독도교육을 위한 체계화된 전문시스템 구축 필요 2. 이를 통한 전문성 있는 교사 양성 3. 양성된 전문교사를 통한 독도교육 진행

그리고 동 논문에 의하면 독도교육주간 독도교육 실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 교육부 독도교육주간 독도교육 실시내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계기교육	1	1	0	1	0	1	1	3
계기교육 후 기념행사	34	4	1	2	0	1	35	7
독도바로알기교육	1	2	0	2	0	1	1	5
외부강사	4	0	1	1	0	0	5	1
독도수호골든벨	2	10	0	6	0	0	2	16
체험교육	0	14	1	8	0	0	1	22
담방	0	1	0	0	0	1	0	2
총계	42	32	3	20	0	4	45	56

자료: 김미선, "독도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pp.48-50. 참고·보완하여 작성(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 독도교육주간 운영학교 보도 자료 등학 현황 : 2019년 4월중 실시학교, 2020년 실시학교임).

7) 김미선, 이범관(2021). 초·중등학교 독도교육주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7(1): 39-51

8) 연구대상을 초·중등학교의 독도교육주간으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2019년과 2020년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경상북도로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음.

2020년 독도교육주간 운영에 중학교의 참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중·고등학생 대상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진로교육과 연계한 독도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41% 증가한 체험교육은 독도 둘레 걷기 5.4km, 독도 사랑 자작시낭송, 독도홍보 버스의 VR체험과 영상물 체험, 내가 만들어가는 독도교재, 토론 축제, 독도 플래시몹 대회, 외부 전문 강사와 함께 ‘독도 쿠키 만들기’, ‘독도 케이크 만들기’, ‘독도 배지 디자인’, 독도 사랑 콘텐츠 공모전 참여, 사이버 독도 사관학교 등교, 독도머그컵 만들기, 독도 사랑 핀 버튼 만들기, 강치인형 나누기 등이다. 이러한 체험교육이 ‘독도교육과 관련된 기초이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통일된 교육 교재가 없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체험교육 위주의 결과 보고를 위한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적 제한이 있는 통계 결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비교과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독도교육 및 독도교육주간의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즉, 연구자의 결론과 같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비교과활동으로써의 독도교육은 단계적 체계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체험활동은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2 국토교육 시범학교 운영이 주는 시사점

다음으로, 2005년 경기도 안산시 양지중학교, 부천시 원종고등학교, 성남시 효성고등학교 3개교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국토교육을 실시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⁹⁾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3개교의 운영 주제 및 운영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2. 경기도 교육청 지정 국토사랑 시범학교 운영 개요

학교	양지중학교	원종고등학교	효성고등학교
기간	2005. 3.1 - 2007.2.28	2005. 3.1 - 2007.2.28	2005. 3.1 - 2007.2.28
대상	1, 2학년 전체 학생 1,024명	1, 2학년 전체 학생 1,025명	1학년 전체 359명
운영 주제	'우리국토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토사랑의식 함양	'우리국토바로알기'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국토사랑 내면화방안	국토순례 체험활동을 통한 국토사랑의식 함양
운영 중점 과	1. 우리국토바로알기 여건조성을 통한 국토사랑의식 수준 향상 2. 우리국토바로알기 프로그램 구안 적용 3. 우리국토 체험활동을 통한 국토사랑의식 함양	1. 계기교육을 통한 국토애호활동 참여 풍토 조성 2. '우리국토' 재량활동 수업을 통한 국토이해 제고 3. 국토체험 특별활동을 통한 국토애호 실천	1. 국토사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환경과 여건 조성 2. '우리 국토' 교재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자료 개발 및 운영 3. 실천적 체험활동을 통한 우리국토 사랑 의식 함양
특 색	• 국토사랑의 날 운영 • '우리국토' 교재 활용 수업 • 체험중심 국토사랑 프로그램 운영	• 국토사랑 내면화를 통한 학교환경 및 홈페이지 구축 • '우리국토바로알기' 운영을 위한 창의적인 재량활동 운영 • 국토사랑 지킴이 체험활동	• 국토순례 체험활동의 정기적 운영 • 국토순례관련 특별활동부서 편성 • 재량활동시간의 국토교재 수업 • 국토사랑 사이트 구축 운영 • 국토사랑 전시회 개최

자료: 양지중학교(2005), 원종고등학교(2005), 효성고등학교(2005) 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

9) 이종용, 안중천 2006. 국토교육 시범학교 운영 성과 및 과제. 국토지리학회지 40, no.3:393-406

세 학교의 운영 주제 및 운영 중점과제는 ① 우리국토바로알기¹⁰⁾ 운영을 위한 환경조성과 ② ‘우리국토’교재를 활용한 학습 자료 개발 및 운영과 체험활동이다.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교직원 연수, 교내 게시판 학습자료, 홈페이지 구축, 국토사랑 교과연구회 활동 등을 실행하였으며 학습자료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사랑을 주제로 한 교과 시간 외, 주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국토’교재를 학습주제별로 다양한 지도방법으로 교수하였다. 더불어 학교 특색에 맞게 국토순례 체험활동 프로그램, 우리고장 답사, 국토사랑의 날, 국토사랑 관련 교내 대회 및 행사(그리기, 자기주장, 퀴즈대회, 사진전 등) 등의 체험활동을 하였다.

결과 분석 내용은 3가지로 나뉘는데, ① 국토사랑에 대한 인식도 ② 국토에 대한 이해도 ③ 국토개발과 보전에 대한 시각이다. 우선 ① 국토사랑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시범학교 운영 전보다 10.4% 상승한 79.2%로 국토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국토에 대한 관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 4. 국토사랑 인식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영역	질문 문항	응답 항목	운영 전 (N=1350)	운영 후 (N=1350)	증감
국토사랑에 대한 인식도	우리국토를 사랑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차주 느낀다.	15.6	23.3	▲ 7.7
		가끔 느낀다.	45.6	55.9	▲10.3
		한번쯤 느껴본 적이 있다.	28.5	13.8	▽14.7
		없다.	10.3	7.0	▽ 3.3
	우리국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69.2	79.0	▲10.4
		전공자에게만 필요하다	10.6	7.0	▽ 3.6
		초·중·고 학생들에게만 필요하다.	15.6	10.7	▽ 4.9
	각종 매체(신문이나 TV, 인터넷)에서 우리국토 관련 기사를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필요없다.	4.6	2.7	▽ 1.9
		꼼꼼히 읽거나 본다.	7.9	16.9	▲ 9.0
		대충 읽는다.	71.9	78.0	▲ 6.1
		그냥 넘어간다.	8.3	2.0	▽ 6.3
		보지 않는다.	11.9	3.1	▽ 8.8
우리국토가 세계 속에서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다.	6.5	9.2	▲ 2.7	
	좋은 편이다.	63.7	72.5	▲ 8.8	
	나쁜 편이다.	22.1	14.8	▽12.7	
		나쁘다.	7.7	3.5	▽ 4.2

다음으로 ② 국토에 대한 이해도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국토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서 국토에 대한 지식의 향상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항목인 ‘내가 사는 곳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오히려 -22.6%로 매우 감소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별다른 해석과 분석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항목이 국토교육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감소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없어 아쉬웠으나, 네 번째 항목인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 다’는 항목이 운영 전 5.0%에서 운영 후 3.8%로 줄어 일정 부분 국토교육 시범학교의 내용이 효율성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10) 2004년 한국토지공사와 더불어 시행된 프로그램

표 5. 우리 국토에 대한 이해도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영역	질문 문항	응답 항목	운영 전 (N=1350)	운영 후 (N=1350)	증감
당신은 우리 국토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각도, 중요도시, 산, 지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7.9	15.9	▲ 8.0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8도를 구분할 수는 있다.	18.8	34.6	▲ 15.8
		내가 사는 곳 정도는 알 수 없다.	68.3	45.7	▽ 22.6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5.0	3.8	▽ 1.2
우리 국토에 대한 이해	우리 국토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수리적·지리적·관계적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2.7	10.2	▲ 7.5
		우리나라 위치를 외국인에게 설명할 정도로 알고 있다.	50.2	40.0	▲ 10.2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다.	63.6	48.4	▽ 15.2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3.5	1.4	▽ 2.1
우리 국토는 2000년~2020년 동안 '제 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으로 국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 알고 있다.	0	15.5	▲ 15.5
		대강 알고 있다.	9.0	38.4	▲ 29.4
		잘 모르겠다.	44.5	28.6	▽ 15.9
		처음 듣는다.	46.5	17.5	▽ 29.0

마지막으로 ③ 국토개발과 보전에 대한 시각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국토교육 시범학교의 학습이 국토개발에 무게를 두지 않고 환경보전 문제에도 적절히 다루어진 것’이라는 성과를 얻었으며 ‘국토사랑 실천 의지나 태도’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한다>는 답변이 운영 전보다 24.4% 높아진 50.6%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6. 국토개발과 보전에 대한 시각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영역	질문 문항	응답 항목	운영 전 (N=1350)	운영 후 (N=1350)	증감
우리나라에서 국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7.1	31.3	▲ 14.2
		국토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68.1	63.7	▽ 4.4
		알고도 국토개발은 필요하지 않다.	1.5	0.9	▽ 0.6
		잘 모르겠다.	13.3	4.1	▽ 9.2
새만금 간척사업, 천실산 터널 공사 등 국토개발로 인해 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한 대립이 야기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	29.2	11.1	▽ 18.1
		인간편의를 위해서 환경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6.0	11.1	▲ 5.1
		개발하되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52.7	68.0	▲ 15.3
		잘 모르겠다.	12.1	9.8	▽ 2.3
시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방사능 폐기장이 들어선다면 당신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어느 지역에선건 방사능 폐기장이 들어서는 안된다.	62.5	41.3	▽ 21.2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괜찮다.	21.7	18.9	▽ 2.8
		방사능 폐기장이 들어서도 괜찮다.	12.9	35.3	▲ 22.4
		적극 찬성한다.	2.9	4.5	▲ 1.6
국토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국토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5	7.5	▲ 5.0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한다.	26.2	50.6	▲ 24.4
		실천의 기회가 거의 없다.	26.7	15.8	▽ 10.9
		실천해본 적이 없다.	44.6	26.1	▽ 18.5

이러한 국토교육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통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이 우리의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이며, 이것이 토대가 될 때 우리 국토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도 한껏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토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일본의 독도 망언 문제, 독도 주변 해양조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 등’이 국토에 관한 관심을 유발한 당시(2005) 상황에서 ‘교육과정에 있어 국토 관련 교육의 핵심이

라 할 수 있는 지리 과목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에 따른 국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위 논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5년이라는 시기적 상황과 3개의 시범학교 운영 성과 분석이라는 한계점이 있으나,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국토교육에 대한 교육의 형태가 실행되었을 때** 학생들은 **국토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국토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하며, '국토교육' 자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크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독도 문제 등과 같은 영토 또는 국토의 위기 상황에서 영토 또는 국토수호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은 교과로서의 '지리교육'만의 몫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과 교육과정을 통해 직접 국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교수하는 교과 단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비교과활동을 통해, 학년별로 지속 가능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며 연속성 있는 국토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Ⅲ. 학교교육과정 비교과활동을 통한 국토교육 -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3.1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을 통한 시사점

필자는 2021년 국토연구원에서 공모한 '국토교육 동아리'에 본교 2학년 학생 4명의 지도 교사로 지원 신청하였고 최종 선발되어 2021. 10. 1부터 2021. 11. 30까지 동아리명 '잼수프(JSP)'로 활동하였다. 동아리 활동에 지원할 당시 국내에서는 378명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국내로 이송한 일명 '미라클 작전'이 회자되고 더불어 국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긴박한 상황이 연일 뉴스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소홀했고 자칫 낮설기까지 한 '국토'에 대하여 제대로 '공부'를 해보아야 한다는 동기를 갖게 되었다. 동아리 결성 전까지 동아리 구성원 대부분은 '국토'에 대한 사전지식과 이해도가 매우 낮았으나,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고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에 대한 지식을 하나둘 쌓아가며 국토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 갈 수 있었다.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 및 동기는 다음과 같다.

- (1)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수업 중 국토 관련 단원을 제외하고 국토에 대한 학습 및 국토이해와 국토에 함양의 계기가 부족하다.**
- (2)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독도 교육은 독도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의 계기 교육에 머물며 학생들로 하여금 '국토수호' 및 '국토'에 대한 인지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에는 다소**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3)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이 학교와 집, 자신의 주 생활 근거지에 대해 알고, 이를 국토의 범위와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국토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국토를 위한 유의미한 활동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 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국토 관련 도서를 읽고 국토에 대하여 학습한다.**
- (2) 학교를 중심으로 제물포여중 학생들의 주요 생활 근거지가 담긴 지도를 작성해 본다.
- (3) 작성한 지도를 바탕으로 독서 활동 및 국토 관련 정보를 담아 맵달력을 제작해 본다..
- (4)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지도를 통해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삶의 변화 방향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지향점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본다.**
- (5)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국토이해와 국토에 함양의 계기**를 갖는다.
- (6)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구촌 시대에 필요한 민주시민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 (1) **1인 4권의 도서를 지정하여 독서 활동을 진행하고, 추가로 동아리 활동에 참고할 도서 6권(함께 읽는 도서 3권, 교내 도서관 구입 요청 도서 3권)과 국토연구원 멘토링 시 추천을 받은 사이트와 영상(국토정보플랫폼, 유튜브 국토TV, 지식채널e‘마음 지도 보물지도’)을 통해 국토에 대해 학습을 하였다.**
- (2) 교내 독도교육주간과 병행하여 주제어 ‘독도’와 ‘국토’를 연결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본교 학생들이 자주 가는 장소와 추천장소를 추가하여, 해당 장소가 포함된 **7개의 장소를 선정하고 맵달력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로 그려, 온라인 달력 제작 사이트를 통해 2022년도 달력을 제작하였고 이를 내년도 학급에 전달할 예정이다.**
- (3) 독서 활동 및 독도 학습을 바탕으로 **국토교육 홍보 게시판(‘국토생활기록부’)**을 제작하여 각 학급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동아리 활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1)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이 학교와 집, 우리 학교 학생들의 주 생활 근거지에 대해 알고, 이를 국토의 범위와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국토에 대한 이해와 국토애를 함양하는 계기를 가졌다.
- (2) 국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확장으로 개인으로는 자아 성찰과 자아실현의 계기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촌 시대의 세계 시민성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계기를 가졌다.

- (3) 생활 근거지의 현재 모습을 통해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변화할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서 향후 생활 모습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 (4) 직접 지도를 그리고 국토와 관련된 도서를 읽으며 내용을 정리해 보는 활동 과정을 통해서, 국토와 관련된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국토교육을 통한 긍정적 경험과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며, 이러한 활동으로 국토를 위한 유의미한 활동을 도출하였다.

동아리 활동 후, 동아리 회원 중학교 2학년 학생 4명의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 조사는 국토교육동아리 활동 수행보고서용으로 진행한 것으로 그중에서 중학생의 국토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중점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문항5에서 ‘평소 국토교육 학습 또는 국토 관련 정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2명은 ‘인터넷’을, 2명은 ‘간행물(책, 잡지 등)’이라고 답했다.
- (2) 문항6에서 ‘동아리 활동이 국토 관련 지식 함양에 도움’ 된 정도로 2명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를, 2명은 ‘비교적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 (3) 문항7에서 ‘동아리 활동의 성과’로 모든 학생이 ‘국토에 대한 지식 습득’이라고 답했다. 필자가 동아리 활동 초기에 진단한 바대로 동아리 구성원의 낮았던 국토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 향상 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 (4) 문항8에서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맵달력과 게시판 작성) 이전과 달라진 점’으로 3명은 ‘국토에 대해 많이 알았다’라고 답했고 1명은 ‘국토에 관한 생각이 달라지고 국토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어 좋았다’라고 답했다.
- (5) 문항7에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교육의 충분함’과 관련해서 1명은 ‘충분한 편이다’고 답했고 1명은 ‘보통이다’라고 했으며 2명은 ‘미흡한 편이다’고 답했다.
- (6) 문항10에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으로 4명이 모두 ‘보통’을 선택하였다. 설문 후 설문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이유를 추가로 답변받았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답했다.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안내장으로 국토에 대한 이야기나 역사 등을 알려줄 뿐, 학생들은 그것조차도 읽지 않아 국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에서 조금 더 국토교육에 신경 써 줬으면 함’, ‘국토는 딱히 우리가 배우는 주요 과목보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아예 안 배울 수는 없기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 (7) 문항11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국토교육을 받은 경험과 내용’으로 3명은 ‘독도교육’으로 답했

고 이 중 1명은 '6·25전쟁'도 언급하였다. 1명은 '받지 못함'이라고 답했다.

- (8) 문항12에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특정 교과 수업 시간 이외에 비교과 활동으로 중학생의 국토 교육 필요성'에 대해 모든 학생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국토와 역사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땅에 대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국토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1명은 '관심 있는 사람끼리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답했다.
- (9) 문항13에서 '추가적인 동아리 활동'으로 2명은 '국토에 관한 곳을 다니거나 체험'하는 것을 언급했고 1명은 국토교육전문가의 '스토리텔링 시간'이라고 하였고 1명은 '국토에 관한 퀴즈'라고 답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문항10과 문항12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모든 학생이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자율동아리, 창체동아리 등)에는 '보통'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선택했으나 특정 교과 수업 시간 이외에, 비교과 활동으로 국토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두 문항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생들은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보다는 학교교육과정 중에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교육의 형태로 국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이유로 답한 내용을 보면 국토에 대한 지식의 습득 경험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3.2. 설문 조사를 통한 시사점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비교과활동을 통한 국토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의 대상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비교적 성실한 자세로 받아 온 3학년 학생 5인으로 하였다. 물론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개인의 '성실한 자세'가 상대적 기준이기는 하나, 대상 학생들은 필자가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 동안 담임 및 교과 교사로 만나온 학생들로, 수업 태도가 바르고 수업 과제를 성실하게 해내며 학급회장이나 교내 공모전 등에도 성실히 참여한 이력이 있다.

설문은 3학년 2학기 2회 고사 직후인 2021. 11. 15.~2021. 11. 17. 사이에 이루어졌고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후 그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제출받았다. 학업과 관련된 부담이 적은 시기에 실시하였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문항별 학생들의 답을 정리한 것은 붙임1을 참고)

설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문항1에서 ‘국토’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은 ‘영토’(땅, 살아가는 공간), ‘독도’, ‘분쟁’, ‘분단’ 등으로 문항에서는 떠오르는 것을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학생들의 답변에서 유의미하게 공통된 요소를 찾을 수 없었다.
- (2) 문항2에서 ‘국토’와 ‘나의 삶’의 연관으로 학생 대부분이 ‘국토가 있기에 나의 삶이 유지’된다고 하였으며 추가로 그렇기에 ‘국토는 산소’ 같고 ‘매우 밀접’하다고 답하였다.
- (3) 문항3에서 ‘나의 생활 주거지 변화 예측’으로 3명의 학생이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스마트한 삶으로의 변화를 예견하였고, ‘환경’과 관련하여 ‘쓰레기’, ‘이상기후’라는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 (4) 문항4에서 ‘나의 생활 주거지 변화 희망’으로 3명의 학생이 ‘친환경’적인 변화를 희망하는 답을 하였고 2명은 ‘쾌적한 환경’을, 그중 1명은 ‘범죄 예방’도 언급하였다.
- (5) 문항5 ‘세계화, 지구촌화, 다인종, 다문화 시대에 국토가 갖는 의미’에서는 모든 학생이 ‘지리적 영역으로 국토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수용하는 개념으로 국토가 정의될 것으로 보았다.
- (6) 문항6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례를 통해 ‘난민과 국토에 관한 생각’으로 ‘국토는 국민의 삶(삶의 안전)을 보전’해야 하며, 발생한 ‘난민’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 (7) 문항7과 문항7-1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국토이해 정도’와 ‘관련 교과 단원’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영토, 영해, 영공’ 등에 대한 교과 학습을 통해 ‘국토의 의미와 의의’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영토, 영해, 영공’을 다루는 과목은 3학년 교육과정 중 ‘사회 2’ 과목으로 관련 단원은 ‘1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이다. 즉,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 직접으로 ‘국토’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국토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8) 문항8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국토이해 교육의 형태’와 관련해서 2명의 학생은 ‘사회’ 교과를 언급하였고 그중 1명의 학생은 ‘지루하지 않을 법한’ 수업 방식을 제안하였다. 1명의 학생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답했고 1명의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체험’ 위주의 수업 방식을 제안하였다. 1명은 ‘분단’과 관련하여 ‘분단의 원인과 실태’를 실감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 (9) 문항9에서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주요 방문지 및 생활 변화’와 관련해서는 ‘마스크’와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방역과 관련된 변화를 언급하였고, ‘학원’ 등 꼭 필요한 상황 이외에, 전체적으로 ‘외출’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 (10) 문항10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중 선호하는 수업과 이유’로, 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으로 답했으며 그 이유로 ‘사회성 향상을 위해’, ‘원격수업의 미흡함 보충’, ‘집중의 정도’ 등으로

답하였다.

- (11) 문항11에서 ‘메타버스가 현실 공간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대에 가상공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현실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더불어 ‘현실 공간과의 적절한 분리가 필요함’, ‘가상공간을 너무 발전시켜서는 안 됨’이라는 의견이 추가로 있었다. 즉, 학생들은 원격수업의 편리성처럼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며 가상공간이 활성화되는 추세와 그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실 공간’의 중요성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2) 문항 12에서 ‘중학교 3년 동안 교과 수업 이외에 받은 국토교육의 경험’으로, 3명은 ‘독도교육’을 언급했고 그중 1명은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추가로 답했으며, 2명의 학생은 ‘경험이 없다’라고 답했다.
- (13) 문항 13에서 ‘중학교 3년 동안 국토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년’으로 4명이 ‘3학년’이라고 답했고 1명은 ‘모든 학년’으로 답했다.
- (14) 문항 14에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교과 수업 시간 이외에 비교과 활동으로 국토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70년간 분단국가이기에 국토교육으로 국토이해를 상승시켜야 함’, ‘우리와 세계를 잘 파악하기 위해’, ‘비교과 활동으로 직접 체험하면 더 잘 기억하기에’ 등으로 답했다.
- (15) 문항 15에서 ‘중학생의 국토교육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국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알면 좋겠음’, ‘학생들이 평소 관심을 두지 않지만 국토 수업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하기를 바람’의 답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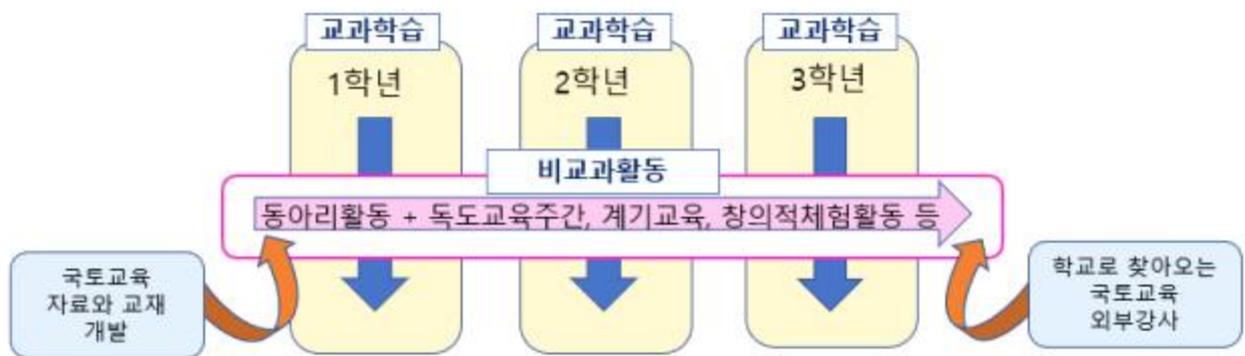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중학교 3년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마친 학생들의 생각에서 사회 교과 시간을 통해 직접 ‘국토’와 관련된 학습이 국토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 향상에 큰 계기가 되었고 중학교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비교과 활동으로 ‘국토교육’은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 학습의 활성화와 메타버스라는 이슈 속에서도 학생들은 여전히 현실의 물리적 공간을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 삶의 터전으로서의 국토는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역이면서, 그 영토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지구촌’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예측하고 희망하고 있다.

IV. 결론

지구촌 시대 다인종-다문화 사회 속에서 현시대에 어울리는 시민성을 갖춘 미래 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의 국토교육이 갖는 의의와 필요성을 독도교육주간 운영 실태 논문과 국토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논문, 그리고 본교에서 진행한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 및 3학년 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학교교육과정 안 비교과활동을 통한 국토교육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제언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단계적 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국토 공부와 활동을 할 수 있는 중학생용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토에 대한 학생 개인의 관심과 흥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중학생 수준에 적합한 도서를 비롯하여 참고 자료집 등의 발행이 요구된다.
- 2)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국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계획단계에서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교과 활동에서의 국토교육이 일회성 교육 관행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우선되어야 하며,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비교과활동을 통한 내실 있는 국토교육의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지도 교사를 위한 교재와 자료의 개발 및 학교로 찾아오는 국토교육(외부 강사)이 실행되어야 한다.
- 3) 중학교 단계에서의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의 다양한 모델이 안내되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가는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국토교육에 관한 관심과 주체성을 기르면서 독도교육주간·계기교육·창의적체험활동 등 비교과활동의 교육 활동을 결합해 갈 때 보다 큰 교육적 효과를 볼 것을 기대한다.

<부록1> 국토교육_설문 조사_중학교 3학년

1. '국토'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떠오르는 것을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학생 1	현재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독도'가 상기된다. 또한 70여 년간 이어지고 있는 '분단'의 아픔도 떠오른다.
학생 2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평화와 분쟁의 공존
학생 3	대한민국, 영역, 영토, 영해, 영공, 태극기, 대통령, 국민, 배타적 경제수역
학생 4	영토, 영공, 영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 우리나라 국토들
학생 5	우리나라 땅, 내가 사는 곳, 대한민국, 남한

2. '국토'와 '나의 삶'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학생 1	'국토'가 있기에 나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학생 2	국토가 있기에 나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3	국토가 있어서 내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다.
학생 4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써 내 삶이 돌아가려면 국토는 꼭 필요한 산소와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학생 5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토이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3. 나의 생활 주거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거로 생각하나요? (예측하고 있는 모습과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학생 1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나의 주변 생활 주거지는 교통이 더욱 편리해지고 현재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2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 스마트홈이나 재택근무 등 편리성을 추구할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한 주거지가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3	4차 산업혁명으로 smart 주거가 많이 확산될 것이다.
학생 4	점점 환경을 아끼는 친환경 주거 주택이나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구의 온도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며 환경을 위해 힘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학생 5	지구 온난화로 점점 더 이상기후가 심해지고 편리를 추구하는 요즘 사람들의 마인드 때문에 삶은 편리해지지만 더 많은 쓰레기 문제들로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더러워질 것이다.

4. 나의 생활 주거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기를 바라나요? (희망하고 있는 모습과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학생 1	나의 생활 주거지는 아직 범죄 예방에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범죄 수가 줄어들면 좋겠고 좀 더 공기가 쾌적해지면 좋겠다.
학생 2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규형적 발전이 가능하면 좋겠다.
학생 3	기후 위기가 심해지고 있어서 그런지 주거지도 친환경적인 양식을 더 추구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 4	모두 각자 자신의 생활 주거지에 만족을 하며 친환경적이고 또한 사물 인터넷이 지금보다 원활히 이루어져 편안한 공간으로 변하기 바란다. 나의 생활 주거지는 무엇보다 '내'가 사는 곳이고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생 5	길에 쓰레기와 없고 길이 정돈이 잘 되어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편리한 시설이 많이 생긴다고 해도 더러운 환경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다. 밤 시간대에는 어둡거나 한적한 길가에는 가로등이나 보안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

5. 세계화-지구촌화 시대를 맞아 세계는 이제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서 '국토'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 1	지리적인 '국토'의 의미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세계화와 다인종, 다문화가 되어감에 따라 '국토'의 의미는 단지 국가 영토의 의미만 가지며 요즘은 그 국토의 제한을 뛰어넘고 있는 것 같다.
학생 2	세계화가 되기 전의 사회는 공간적인 경계 외에도 문화적인 경계도 존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영역의 구분으로서의 기능만 남아있을 뿐 문화적 구분의 기능은 점점 사라져간다고 생각한다.
학생 3	보이는 것만(영토, 영해, 영공) 국토가 아니라 언어, 전통 등도 우리를 표현해주기 때문에 문화 등도 국토처럼 지키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 4	이러한 사회에서의 '국토'가 갖는 의미는 딱 그 나라의 순수 민족만이 아니어도 그 국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비록 서로의 생김새는 달라도 우리 모두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어도 '국토'의 의미가 과연 지금과 달라질까? 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같은 한 인간으로써 여전히 '국토'의 의미는 변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생존공간이라 생각한다.
학생 5	요즘은 한 국가에 한 인종, 한 나라 사람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땅 너네나라 땅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살아가는 장소, 다양한 문화가 결합하는 하나의 장소와 같은 의미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6. 73가구 378명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이 8.26(목) 16시 28분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했던 시기에 주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바그람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우리를 도와 수년간 협력을 제공해왔던 분들 및 이들의 가족들입니다.
-출처:국방부 보도자료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국내로 수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난민이 발생하는 사태를 통해서 '국토'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학생 1	'국토'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국토 내의 문제로 인한 사람들을 '국토'의 제한과 한계를 넘어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으로 말이다.
학생 2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분명 국민임에도 살아갈 땅이 없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릿해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토를 포용적으로 생각해 난민을 수용하고 다양함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3	국토는 그 나라의 국민을 보호해야하는데 오히려 목숨을 앗아가고 떠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 난민국들의 국토가 제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학생 4	'국토'는 난민같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난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도 역시 살아가야 할 곳이 분명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생 5	국토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하는 곳이라고 배웠는데 국토 때문에 분쟁을 만들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게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7. 중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국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독도의 날 계기교육, 사회·역사-역사, 지리, 국토관련 단원, 도덕-통일관련 단원, 기술가정-주거복지 등 중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국토에 대하여 알고 이해한 정도를 적어 주세요)

학생 1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최소년 분단국이기 때문에 국토와 통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편이다. 역사와 사회 과목의 교과과정을 통해 분단의 원인과 아픔, 그리고 국토의 의미와 의의를 어느정도 알게 된 것 같다.
학생 2	국토의 지리적인 측면 외에도 주거복지 등의 실생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었다. (세계의 국토 분쟁 등)
학생 3	국토의 정도가 어느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수역을 배우며 국토의 영역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학생 4	국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외부에서의 침입을 전적으로 막고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 영역이다. 국토는 영토, 영해, 영공이 있으며 국민의 생활 공간과 삶의 터전으로써 국가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5	사실 국토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3학년2학기에 올라와서 국토에 대해 많이 알 수 있게 되었다.

7-1.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국토’와 관련된 과목은 무엇이고 어떤 단원이 기억에 남나요? (단원명이나 핵심 단어를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 1	중학교 3학년 사회 11단원에서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관련된 과목은 아마 ‘사회’ 과목인 것 같다.
학생 2	사회2 11단원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지역화 전략 11-1단원에서는 지리적 측면과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토의 개념과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1-2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개성을 들여다봄으로써 국토의 문화적인 면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 3	사회 세계 속 우리나라-영역에 관한 것들을 배우며 독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배웠다. 그 중에서 영역적 가치를 배웠는데 영역적 가치로서 독도를 지키려 한다는 부분이 처음 배워서 그런지 재미있었다.
학생 4	나는 사회과목이 생각한다. 2학기 2회 고사 때 11단원인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서 ‘국토’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학생 5	사회 11단원.국토 영토 영해 영공

8.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국토’이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예: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00시간, 00교과수업에서 000000한 방법으로, 동아리 활동 등)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 1	‘분단’이 된 원인과 실태에 대해 중점을 두어 그 아픔을 머리로 스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학생 2	사회 교과와 기가 수업에서 독도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 주변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수업한다면 더 공감하며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학생 3	지금처럼 이루어져도 좋을 것 같다.
학생 4	사회 시간에 국토 이해 수업으로 학생들이 지루해지지 않을 법한 그리 많지 않은, 중요하고 잘 설명이 되어 있으며 짧은 영상을 보고, 퀴즈 같은 것이나 국토와 관련된 국토 보드 게임도 추천하며 진지하게 국토에 대해서 하나의 수업이 아닌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지식임을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
학생 5	동아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토에 대해 조사해보고 지도에서 찾아 표시해보는 활동처럼 그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기만 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9.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코로나19 이후(2020~2021현재) 자주 방문하는 곳이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학생 1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자영업 가게 같은 곳으로 갈 때 발열체크와 동선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다.
학생 2	마스크를 구비해 두는 것이 생활화되었고, 밖에서 외식을 하기 어려워져 배달 혹은 포장 이용 빈도가 높아졌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학생 3	식당에서 발열체크와 손소독, QR 를 하기 시작했다.
학생 4	학원 이외에는 절대 나가지 않게 되었고 매일 집안 생활을 하다보니 몸이 많이 약해졌고 사람이 점점 게을러 지는 것 같았다.
학생 5	이전에는 외출을 매우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정말 필요한 외출만 하려고 노력중이고 웬만하면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중이다.

10. 작년부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수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 1	내가 선호하는 수업은 등교수업이다. 학교를 다니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성 향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성을 향상하기 위해 등교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를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또한 원격수업은 가정이 불안정한 사람에게.
학생 2	등교수업. 인터넷 연결 문제, 학습 이외 다른 요소들이 많은 것 등 원격수업에서의 미흡한 부분이 등교수업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 3	개인적으로 등교수업을 더 선호한다. 원격은 수업에 집중이 잘 안되지만 등교수업은 집중이 더 잘되고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질문하기도 더 쉽기 때문이다.
학생 4	내 편의를 위해서라면 원격 수업이 좋다고 말하겠지만, 나의 공부와 학업을 위해서라면 등교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5	등교수업-온라인 수업은 다시 복습할 수 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솔직히 온라인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것, 책상에 앉아서 듣는 것이 쉽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등교수업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11.

메타버스(metaverse) 또는 확장 가상 세계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다.[1] '가상 우주'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이는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 세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한다
-출처: 위키백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생각할 때,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나요? (또는 가상공간이 확장되는 추세 속에서 현실공간은 어떤 의미(필요, 중요성)를 가질까요?)

학생 1	마치 현실세계가 가상 세계에 동화되어 가는 것처럼 점점 가상세계가 우리 생활에 융합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학생 2	가상의 공간은 현실에서 할 수 없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등, 우리의 삶에서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실과 가상 공간의 적절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3	현실 공간에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지금처럼 펜데믹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현실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거라는 생각을 한다. 또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차이를 배우고 터득하기 위해 가상공간에서 함께 만나보며 편견을 만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학생 4	'메타버스'. 어떻게 보면희망적인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는 조금 무섭게 느껴진다. 가상 세계에서의 나와 현실의 공간에서의 나가 분명 차별화가 될 것이고 현실의 공간에서의 삶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상 세계 이외의 것들을 소외하게 될 것이며 분명 우리는 이 세계관을 너무 발전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학생 5	이제 점점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처럼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감정들 유대관계들을 위해 현실공간이 더욱 필요한 것 같다. 온라인에서는 내 본모습을 어떻게든 위장하고 숨길 수 있지만 현실공간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는 온라인보다는 현실공간이 더욱 진솔한 장소가 되는 것 같다.

12.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교과수업 이외에 '국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예 : 독도교육, 625전쟁이나 개천절 등의 계기교육 등)

학생 1	아니요. 경험 없습니다.
학생 2	네. 독도교육. 도서관 근처 관련 도서 전시 및 유인물 부착(독도교육 외에도 많음)
학생 3	네. 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내가 집중을 안했기 때문이다.
학생 4	독도교육, 영토와 그 외 관련된 지식들(영공, 영해, 영토 등),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
학생 5	6.25전쟁 독도 교육

13.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국토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년은 몇 학년인가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학생 1	3학년 사회교과 시간에 우리나라의 영토, 독도에 대한 파트를 배웠습니다.
학생 2	3학년. 교과과정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함(=가장 많이 배움)
학생 3	3학년이다. 내가 3학년 것 밖에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 4	2학년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수업 진행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되어 3학년이 오히려 안정된 수업을 하면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지 않나 싶었다.(1학년 때는 잘 기억이 안나요ㅠㅠ)
학생 5	모든 학년

14.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특정 교과 수업 시간 이외에, 비교과 활동으로 중학생들의 '국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 1	결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교과수업만큼 학생들의 흥미가 높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70년간 분단되어 있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교과 활동의 국토교육이 확충되어야 학생들이 국토이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을 국토교육으로 학생들의 국토이해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하였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2	세계화된 지금 우리와 세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있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3	네. 우리 건 우리가 지켜야 하나까요~
학생 4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냥 교과 수업 시간에 안 듣게 되면 그냥 아 내가 그때 그런 수업을 들었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과 활동으로 내가 직접 찾아보게 되면 확실히 기억에 더 잘 남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학생 5	우리나라 땅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5. 기타 중학생의 '국토교육'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학생 1	(무응답)
학생 2	(무응답)
학생 3	우리가 소속해 있고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이 각각 모두 국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알았으면 한다.
학생 4	학생들은 '국토교육'이라고 하면 딱히 관심을 두지 않고 귀찮은 일종의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국토'수업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학생 5	(무응답)